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몇 년 전 동생 신부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례 초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걷는데, 보름 정도가 지나면 걷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혼자서 끝도 없는 들판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동생은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걷다가 오후쯤 시원한 그늘이 있는 숲속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숲속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만남에 대해서 동생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의 순간이 떠올라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가 믿는 부활의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을 여의는 것을 흔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깊은 구렁 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큰 슬픔을 이겨내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세상과 천국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주고 서로 통교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1980년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정해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홍보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밤새 많은 눈이 내린 바닷가 이른 아침,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나라. 그분은 어둠과 죽음, 죄와 고통을 온전히 이기셨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과 같이...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